

“어머니 소중한 일상 기록으로 남겨 간직하고 싶어”

김명진 전 화순원예농협 상무 ‘푸집이 어머니...’ 자서전 출간

“병환으로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오신 날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진으로 엮은 어머니의 자서전을 만들어드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늘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아들 김명진 전 화순원예농협 상무가 어머니 정영순(83) 여사의 삶을 정리한 ‘푸집이 어머니-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를 펴냈다. ‘항상 불임성 좋고 인심이 많은 후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마을 사람들이 부르던 ‘푸집이 엄마’가 책 제목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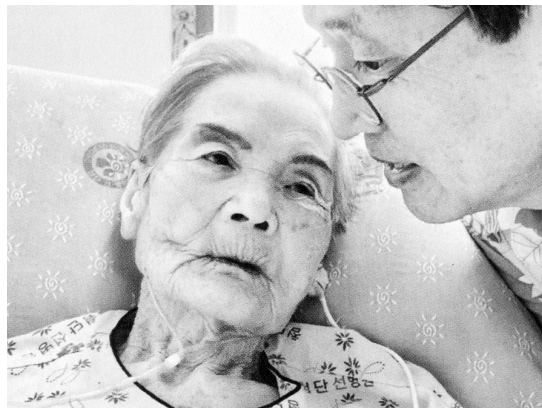
김 씨는 퇴직 후 1년 반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소통 장구(밴드)를 만들어 그날 그날 일어난 일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그가 이번 책을 내게 된 데는 지난 2021년 펴낸 자서전 ‘부모의 길’이 계기가 됐다.

“오래 전부터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때 삶을 정리하는 책 한권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펴내고 나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참 의미가 있었죠. 그

래서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의 삶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준비하며 어머니의 인생은 오직 하나, 자식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매끄럽게 만들어진 책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다. 책에는 병상에서 나온 대화를 비롯해 남의 것에 탐을 내거나 거짓말 하는 걸 가장 싫어하셨던 어머니의 가르침, 유언처럼 말씀하신 ‘항상 양보하고 살아가, 항상 화목하라’ 등이 실렸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큰 딸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미안한 마음도 담겼다.

책에 실린 사진은 어머니의 삶을 오롯이 담고 있다. 아들과 마주잡은 ‘주름진 어머니의 손’은 그녀의 인생을 한 눈에 보여주며 가족들의 방문 기록, 병상 일지, 즐겨듣던 이미지의 앨범 사진 등이 그대로 담겼다. 특히 낡고 낡은 어머니의 흑백 사진, 지금은 장성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촬영한 기념사진, 멋지게 파



어머니 정영순(왼쪽)여사 자서전을 펴낸 김명진씨.

마를 하고 손녀들과 찍은 사진 등 행복했던 일상을 포착한 사진이 눈길을 끈다.

“거창한 책을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늘상 하시던 말씀,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어요.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 책을 보여드리니 알은체를 하셨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민의 날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시상



전남도가 선정한 ‘2024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시상식이 23일 화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남도민의 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편 출신인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지난해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100여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는 데 기여했다. 남수현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여자단체전 10연패(남수현), 임애지는 국내 여자 최초 메달 획득의 성과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영암 출신인 고창회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천

으로 서남권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장성 출신인 (사)대한한문학회 오재근 전남도협회장은 33년간 한국형 중등개별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사)희망나누는사람들 김정안 회장은 나주 출신으로 취약계층 800명에게 10억 상당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150개 시설에 170억원 물품의 후원을 연결했다.

화순 출신 소설가 정찬주 작가는 호남의 향을 밝히는 소설 17권을 발간, 5개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도시재생 연합회서 지역 균형발전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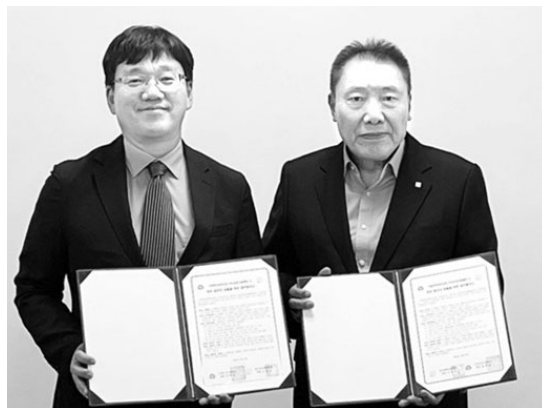


전남도가 지난 25일까지 이틀간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2024년 도시계획·도시재생 연합회’를 열어 도시공간 전문가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연합회에는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최봉문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회장, 김합집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시재생 혁신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지역 활성화 방안과 전남형 융복합 도시재생 비전 등을 소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국립목포대·전남경영자총협회 일자리 창출·취업 활성화 협약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지난 23일국립목포대학회관 2층 집약카바실에서 전남경영자총협회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목포대 제공>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소외계층 아동에 음식 전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광주광천점(점주 이나은)이 지난 24일 립레츠·치즈필라프 세트 60개를 광주지역 소외계층 아동에게 기탁했다. (사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평소 ‘아동, 지역 사회’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리브백 캠페인에 광주지역을 대표해 참여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결혼하자 맹꽁이(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930	3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빠리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5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 수목드라마 개소리(재)	15 헬로킴지 공학교실(재) 30 헬로킴지 TV생물도감(재)	00 우리끼리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살리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희망 노트(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한글용사 아이야(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출동! 유추구조대(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 30 세상의 모든 다큐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2TV 생생정보	10 폭 쉬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6	00 6시 내고향	15 202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KIA)	05 소통 프로젝트 (화순편)	20 시장의 품격 스페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05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꽁이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싱크로유	00 폭 쉬면 다행이야	00 시사타치! 따따따 30 도시락 스페셜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10 서울대 야구부 -우리 한 번만 이겨보자	45 오온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우리 집 금송아지(재)	40 아이 러브스포츠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25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재)	05 영화가 좋다(재)	30 스포츠 매거진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만국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극한직업	19:50 왔다 내 손주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처음이야. 이런 타이완! -한여름의 끝자락>
07:45 메탈카드봇 S 강철의 귀환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영 유치원(재)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나는 자연산이다 1부 국동항의 은빛 물결>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5:55 불룩스	21:55 PD로그
08:3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6:10 당동영 유치원(재)	22:45 EBS 다큐프라임
08:50 레인보우 버블럼	16:30 페파 피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자이언트 팽TV	16:40 마사와 곰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40 유아 클래스e	16:55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10:10 탑골스타 개칭이	17:10 명탐정 피트4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8일 (음 9월 26일 乙丑) ☎ 010-9790-8237

<p>36년생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대비해야겠다. 48년생 적기에 적용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0년생 함께 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행운이 따르리라. 72년생 망설이다가는 급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84년생 앞뜰한 발상이 운택한 생활로 이끌게 됨을 명심하라. 96년생 밤심 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렵다. 행운의 숫자 : 32, 76</p>	<p>42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보낼 수다. 54년생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66년생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건이 조성되어 가리라. 78년생 주체성과 확고부동한 자기 확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90년생 정밀하게 살펴야 파악이 가능하다. 02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변하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39, 74</p>
<p>37년생 지혜를 짜내어 요령껏 풀어나가야만 한다. 49년생 연결되는 점점에서 깔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61년생 예까지 못한 불발적 현상으로 인해서 형세가 악화될 수 있다. 73년생 필수적인 것들을 간과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리라. 85년생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머지않아 적용할 것이다. 97년생 구분을 해주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5, 71</p>	<p>43년생 상호 보완해야만 하는 것이 산적해 있다. 55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관해졌다. 67년생 선택을 잘 한다면 실리를 취하게 되는 본원이 된다. 79년생 열심히 행 하더라도 기대해 왔던 바에 비해서 성과가 현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91년생 마무리가 확실해야 한다. 03년생 역 발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50</p>
<p>38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50년생 강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야 능률적이다. 62년생 어떻게 임장이 바뀔지 모르는 형국이다. 74년생 특질의 차가 작으니 큰 의는 없겠다. 86년생 투명해야만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98년생 회자정리 하는 법이니 아무리 아깝고 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해독은 것과 결별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1, 81</p>	<p>44년생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닭 쫓던 개이 양태가 될 수도 있다. 56년생 아직은 시기 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68년생 거의 똑같은 국량이란복 되면서 다소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운세이다. 80년생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속단하지 말라. 92년생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04년생 끝까지 경정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3, 91</p>
<p>39년생 객관성을 유지하고 상응하는 관계 파악에 능해야 한다. 51년생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 63년생 배려하는 입장에 서다 보면 꼬인 일도 풀리리라. 75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87년생 의힘만 근사할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 99년생 만사를 차치하고 과감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08, 78</p>	<p>45년생 주체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느니라. 57년생 항상 똑같이 보아 왔다면 문제가 있다. 69년생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81년생 익숙하고 단련이 되어 있어서 할 만 하리라. 93년생 모색하다 보면 속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05년생 여유를 갖고 자신의 뒤를 돌아 보아야 할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22, 87</p>
<p>40년생 미비한 점이 보인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보충하여 덧 붙일 필요가 있겠다. 52년생 이룰 수도 없고 저될 수도 없을 것이다. 64년생 평판을 의식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76년생 우선시 해줘야 할 바가 분명해 있다. 88년생 반드시 고쳐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00년생 임시 위상이니 부담 없이 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4, 94</p>	<p>46년생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상승 기류를 마련한다. 58년생 무의식적인 대응이 향후의 지속적인 위상을 좌우해 버릴 수도 있다. 70년생 경사가 급한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다. 82년생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하는 형세이다. 94년생 성과가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실속은 있는 편이다. 06년생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46, 61</p>
<p>41년생 상호 공존하는 성공을 만들어 가자. 53년생 상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굳이 내색하려 한다거나 숨기려 하지 말라. 65년생 당면한 문제 해결이 급하므로 부차적인 일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77년생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89년생 용기보다는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01년생 망연하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09, 58</p>	<p>35년생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분명히 다름을 알라. 47년생 한번 정해진다면 계속 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59년생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점차 확대일로에 놓인다. 71년생 발전적인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83년생 한 달포만 늦추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다. 95년생 민첩한 순발력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12, 54</p>